



KWC와 역사를 함께한 와이너리

처음 KWC가 열리던 해부터 지난해까지 15번의 KWC가 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가한 와이너리, KWC에 꾸준히 참여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온 와이너리, 좋은 결과를 얻어 한국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와이너리까지 KWC와 역사를 함께한 와이너리들이 있다. KWC 10회 이상 참가한 와이너리와 이들의 대표 수상 와인을 소개한다. 글 조은지 사진 각 수입사, 장영수



루이스 펠리페 에드워드 와인을 만든 사람들

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가르메네르를 재배한다. 또한 해발 900m의 구릉에 펼쳐져 있는 레이다 밸리의 포도밭에는 피노 누아,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이 재배된다. 포도밭의 확장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품질은 더욱 고급스러워졌다. 최고의 와인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LFE는 칠레 와이너리의 좋은 성장의 예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해외 유수의 컴피디션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1. Luis Felipe Edwards LFE900 Malbec
 (2019 Gold) 수입사 FL코리아



1

★★★★★★★★★★★★★ 15회 참여

Luis Felipe Edwards 루이스 펠리페 에드워드

칠레의 명망 있는 생산자 루이스 펠리페 에드워드(이하 LFE)는 2005년 시작된 제1회 KWC부터 최근 KWC 2019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와인을 출품했다. 2012년 까베르네 소비뇽 레제르바로 'Best Chilean Wine'을 석권한 바 있는 이들은 KWC에서 다양한 수상을 기록하며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따라서 LFE는 KWC와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와이너리라고 할 수 있다. LFE를 수입하고 있는 FL코리아는 이들의 성공 요인을 '칠레 와인이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들에게 품질을 먼저 인정받도록 한 것이 적중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1976년에 설립된 LFE는 칠레 콜차구아 밸리에서 320ha의 포도밭을 가꾼 이래 현재는 레이다 밸리에 두 곳의 포도밭을 추가로 확장해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각각의 포도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토양에 맞는 품종을 심고 최고의 상태를 간직한 포도만을 선별한다. 콜차구아 밸리에서는 까



트리벤토 포도밭 풍경



트라피체 와이너리

★★★★★★★★★★★★★ 14회 참여

Sileni Estates

실레니 에스테이트

실레니는 KWC를 통해 꾸준히 만나볼 수 있었던 뉴질랜드 와이너리다. 201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KWC에 참가했고, 에스테이트 셀렉션 더 플래투 피노 누아로 두 차례나 'Best New Zealand Wine'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8년에 설립된 실레니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유명세를 도운 와이너리 중 하나다. 뉴질랜드 북섬의 가장 큰 와인 산지인 혹스 베이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말보로 지역에도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데일리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셀라 셀렉션, 좀 더 좋은 품질의 포도로 만든 그랑 리저브, 최상위 품질의 악셉셔널 셀렉션으로 3가지의 레인지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실레니의 양조 철학을 담은 삼각형 로고에는 좋은 음식, 좋은 와인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의 기쁨을 표현했다.

대표 수상 와인
2. Sileni Estate Selection Straits Sauvignon Blanc
 (2017, 2019 Gold) 수입사 에노테카코리아

Trivento 트리벤토

★★★★★★★★★★★★★ 14회 참여

제1회를 제외하고 매년 KWC에 참가하고 있는 트리벤토는 글로벌 와인 그룹 콘차이 토로가 1996년 멘도사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세 개의 바람'을 뜻하는 트리벤토는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땅인 멘도사를 지나는 세 종류의 바람(존다, 플라, 수데스타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람들은 멘도사의 떼루아와 양상불을 이뤄 트리벤토 와인에 생동감과 특별함을 부여한다. 아르헨티나의 잠재된 에너지, 콘차이 토로의 오랜 양조 노하우, 현대적인 기술과 함께 빠른 성장을 이룬 트리벤토는 세계 최고의 말베크를 생산하는 말베크 명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에 안주치 않고 말베크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3. Trivento Golden Reserve Malbec (2007, 2008, 2017, 2019 Silver / 2015 Bronze)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Trapiche 트라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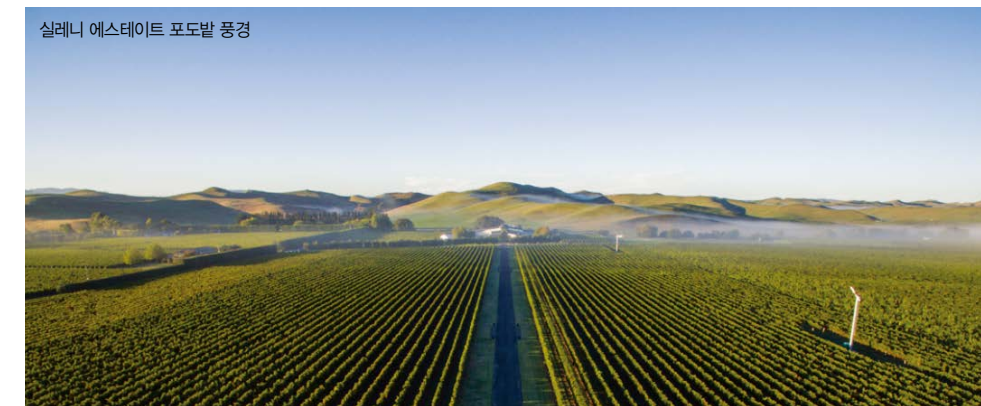
★★★★★★★★★★★★★ 13회 참여

트라피체는 KWC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는 와이너리이며, 매년 KWC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출품하는 생산자 중 하나다. 1883년 멘도사에 설립된 트라피체는 프랑스를 수차례 방문하여 포도나무를 들여왔고, 전통 양조 기법도 받아들였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와인 수출을 시작해 아르헨티나 말베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2004년, 2006년 그리고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와인 컴피디션 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로 이름을 올리며 남미를 대표하는 와인 그룹으로 거듭났다. 2019년에는 아르헨티나 와인 중 수출물량 1위, 내수시장 판매 3위를 차지했고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대표 수상 와인 4. Trapiche Manos Malbec (2016 Best Argentina Red / 2015, 2018, 2019 Gold)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실레니 에스테이트 포도밭 풍경





우마니 론끼 포도밭

Umani Ronchi 우마니 론끼

★★★★★★★★★★ 13회 참여

2005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KWC에 참가한 우마니 론끼는 이탈리아 동부 마르케와 아브루쑈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1955년 마르케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한 후 아브루쑈에 포도밭을 확장하며 와이너리의 규모를 키운 곳이다. 이들은 아드리아 해와 아펜니노 산맥의 영향을 받은 최상의 포도를 재배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한다. 우마니 론끼는 1997년 런던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펠라고 와인으로 최우수 레드 와인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또한 2012년 마르케 지역 대표로 이탈리아 프리미엄 와인협회 '그란디 마르키에' 소속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매해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인을 생산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5. Umani Ronchi Cumaro
(2007, 2018, 2019 Silver / 2006, 2015 Bronze) 수입사 레벡드매일

Cono Sur 코노 수르

★★★★★★★★★★ 12회 참여

코노 수르는 처음으로 참가한 KWC 2008에서 20 베럴스 리미티드 에디션 메를로로 'Best Chile Red'를 수상했다. 그 후 수년간 KWC를 참여하며 KWC에서 가장 많은 수상 기록을 세운 와이너리 중 하나가 되었다. 1993년 칠레 콜차구아 밸리에 설립된 코노 수르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와이너리다. 설립 3년 뒤인 1996년에는 국제적 인증기관인 ISO(국제 표준화기구)에서 ISO 16001을 획득해 제품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2000년에는 ISO 9001을 통해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칠레에서 2번째로 큰 유기농 생산자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경영, 재배로도 유명하다. 2007년 와이너리로서는 최초로 탄소배출 0% 인증을 받았다. 또한 칠레 피노 누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등 이 나라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품종을 도입했다.

대표 수상 와인 6. Cono Sur Single Vineyard Carmenere (2019 Gold / 2013 Bronze)
수입사 신세계 L&B



5 6 7

Champagne Deutz 샴페인 도츠

★★★★★★★★★★ 11회 참여

샴페인 도츠는 2009년, 2010년, 2019년에는 브뤼트로, 2018년에는 블랑 드 블랑으로 'Trophy Sparkling'을 총 4회 수상했다. KWC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내며 그 품질을 인정 받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1838년 상 뼈뉴의 아이 지역에 설립된 도츠는 6대째 와인 생산을 이어 오고 있다. 샴페인 하우스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신선함과 섬세함'이라는 철학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한다. 도츠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내기 위해 년빈티지 포함 전 레인의 샴페인들은 최고 퀄리티의 포도로 처음 압착한 주스만을 사용한다.

대표 수상 와인 7. Champagne Deutz Brut Classic
(2009, 2010 Best Sparkling / 2019 Trophy Sparkling / 2012 Gold / 2014 Silver / 2015 Bronze) 수입사 레벡드매일



8 9 10

Peller Estates 펠러 에스테이트

★★★★★★★★★★ 11회 참여

펠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KWC 수상 리스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생산자다. 이들의 대표 생산 와인은 아이스 와인이다. 그간 KWC의 참가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듯 펠러 에스테이트의 아이스 와인은 'Trophy Sweet'를 비롯해 다수의 상을 휩쓴 경력을 가지고 있다. KWC 2018에서는 'Trophy Icewine'이 생길 정도로 아이스 와인의 출품이 다양했다. 펠러 에스테이트는 1927년 헝가리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앤드류 펠러(Andrew Peller)가 설립했다. 오카나간 밸리에 와이너리를 설립한 그는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1969년 온타리오 주의 나이가라 페닌슐라로 이주했다. 현재 아이스 와인 이외에도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소비뇽 블랑 등의 스틸 와인도 생산하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8. Peller Estates Signature Series Oak Aged Vidal Blanc Icewine
(2018 Trophy Icewine) 수입사 미수입



펠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알리 습지대



산 페드로 포도밭 풍경

★★★★★★★★★★ 11회 참여

Ventisquero 벤티스쿠에로

벤티스쿠에로는 칠레 최대 와인 농수산물 회사인 아그로 슈퍼(Agro Super)의 자회사로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2000년부터 와인을 생산했다. 수석 와인메이커 펠리페 토소(Felipe Toso)의 가이드라인 아래 마이포 밸리에 처음 와이너리를 세우고 3년 후에는 카사블랑카 밸리와 아팔타 밸리로 영역을 넓혔다. KWC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잘 알려진 벤티스쿠에로의 브랜드, 알리(Yali)로 총 11회 참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칠레 국립 산림공사(CONAF)가 조성한 알리 습지대(Yali Wetland)에서 이름을 딴 알리는 친환경적인 와인을 추구한다. 와인 레인지에도 습지대와 관련된 이름을 붙여 생태계 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2013년에는 칠레 와이너리 가운데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칠레를 대표하는 친환경 와이너리로 입지를 굳혔다.

대표 수상 와인 9. Yali Limited Edition Carmenere
(2019 Gold / 2015 Silver) 수입사 레벡드매일

★★★★★★★★★★ 11회 참여

San Pedro 산 페드로

칠레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와인 그룹이다. 1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산 페드로는 194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칠레 와인의 선두주자로 위치를 굳혀나갔다. 칠레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를 넘어 한국 와인 시장에서는 국민 와인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국민 와인 1865, KWC 2008에서 소비뇽 블랑으로 'Trophy White'를 수상하며 국내 진출의 계기를 마련한 몰리나, 와인의 품질과 브랜드의 가치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타라파카 등 수많은 히트작으로 KWC에서 다양한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10. 1865 Single Vineyard Cabernet Sauvignon
(2017 Gold / 2008, 2015, 2016 Silver / 2009 Seal of Approval)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제라르 베르트랑

★★★★★★★★★ 11회 참여

Concha y Toro 콘차이 토로

콘차이 토로는 1833년 칠레에 설립된 와이너리다. 1933년에 와인 수출을 시작했고, 1950년대에는 새로운 포도밭들을 매입하며 와이너리를 확장했다. 점차적으로 칠레 대부분의 와인 산지에 포도밭을 확장하면서 현재 콘차이 토로는 아르헨티나, 미국 등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와인 그룹으로 성장했다. 칠레 와이너리 중 최초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와이너리이자 2010년에는 영국 주류 전문 리포터에서 전 세계 와인 부문 파워 브랜드 2위로 선정되었다. 규모가 큰 만큼 해마다 KWC에 많은 와인을 출품하는 와인 생산자이기도 하다. 콘차이 토로가 역대 KWC에 출품한 와인 브랜드에는 페체, 마르케스 데 까사콘차, 본테라, 트리오, 까시예로 델 디아블로 등이 있다.

대표 수상 와인

11. Marques De Casa Concha Etiqueta Negra (2018 Gold) 수입사 금양인터네셔널

Delas 들라스

★★★★★★★★★ 10회 참여

들라스는 KWC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론 와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좋은 성적 또한 놓치지 않는다. 들라스 프레르의 역사는 1835년 샤를 오디베르(Charles Audibert)와 필립 들라스(Philippe Delas)가 고프 뒤 론의 40년 된 와이너리를 매입하면서 시작된다. 1879년 시드니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대회와 박람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갔다. 이들은 180년 이상의 전통과 수년간 쌓은 노하우, 품질 좋은 와인으로 론 지역의 TOP 4 생산자에 등극했다.

대표 수상 와인

12. Delas Chateaufeuf du Pape (2018 Best France Red / 2013, 2014, 2019 Gold / 2017 Silver) 수입사 레뱅드매일



11

12

13

Gerard Bertrand 제라르 베르트랑

★★★★★★★★★ 10회 참여

KWC 2010부터 매년 참가해온 제라르 베르트랑은 다양한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 남프랑스 와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프랑스 와인의 혁명을 불러 온 생산자'는 제라르 베르트랑을 따라다니는 수식이다. 아버지 조르주 베르트랑으로부터 떼루아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아 1992년 설립된 이후부터 특색 있고 유서 깊은 랑그독 루씨옹 지역 포도밭을 매입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포도밭을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무라에 레인지는 양조 과정 중 이산화황을 포함한 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는다. 현재 14개의 에스테이트를 보유한 이들은 프랑스 남부에서 가장 큰 와이너리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12년에는 IWC에서 선정한 '2012 최고의 레드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수상 와인 13. Gerard Bertrand Cigalus Blanc (2013, 2017, 2018 Gold / 2019 Silver) 수입사 하이트진로



콘차이 토로의 와인 셀러

★★★★★★★★★ 10회 참여

Fantini Group 판티니 그룹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인 그룹, 판티니는 다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며 국제 와인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아브루초에서 시작한 이들은 캄빠니아, 풀리아, 바실리카타, 시칠리아 지역에 각기 다른 와이너리를 오픈하여 이탈리아 남부 와인을 알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저명한 와인 평론지 루카 마로니는 2016년과 2017년, 2019년, 2020년까지 판티니를 '최고의 이탈리아 생산자'로 선정했다. 판티니가 국내 시장에서 한결 같은 퀄리티로 신뢰를 다진 데는 KWC에서의 수상이 큰 역할로 작용했다. 그룹으로 성장하기 전부터 KWC에 이름을 알린 이들은 처음에는 아브루초 와인만을, 현재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와인들을 골고루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14. Fantini Collection Bianco (2017 Trophy White / 2018 Gold / 2019 Silver) 수입사 와이벌



14

15

16



판티니 그룹 포도밭 풍경

★★★★★★★★★ 10회 참여

Morande 모란데

1996년 설립된 모란데는 6년 뒤 (Wine & Spirits)가 뽑은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KWC 2016 'Best Chile Red'에 이름을 올리며 와이너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와이너리의 설립자 파블로 모란데(Pablo Morande)는 20여 년간 콘차이 토로의 와인메이커였던 칠레 와인 업계의 거물이다. 그는 1996년 콘차이 토로를 떠나면서 모란데의 이름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가장 저렴한 와인에도 포도가 기원하는 지역의 특징을 살리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와이너리를 운영한다. 이들의 포도밭은 마이포, 카사블랑카, 마울레 벨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마이포 벨리의 포도밭은 칠레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오는 마이포 최고의 세부지역, 알토 마이포에 자리하고 있다.

대표 수상 와인 15. Morande Gran Reserva Syrah (2016 Best Chile Red / 2014 Silver) 수입사 WS통상

Castle Rock 캐슬 락

★★★★★★★★★ 10회 참여

1994년 설립된 캐슬 락은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다. 이들은 소노마와 나파 밸리, 멘도시노, 몬테레이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와인 생산지역과 오리건 주의 윌라메트 밸리, 워싱턴 주의 콜롬비아 밸리까지 미국 주요 산지의 와인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들은 포도를 직접 재배하기보다는 미국 각지의 농장에서 뛰어난 품질의 포도를 구입하여 와인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한다. KWC에 다년간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캐슬 락은 특히 2007년 메를로로 캐슬락 와인의 진가를 알리는데 주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ㄸ

대표 수상 와인 16. Castle Rock Cabernet Sauvignon (2013, 2015 Silver) 수입사 하이트진로